

금요 양성 2025년 10월 17일

## 복음 선포와 와 복음 선포자

지난 주에 우리는 2025-2028년 새로운 국가 주제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를 제시했다. 이번 주에는 그 주제에 내포되어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 본다. “재속프란치스칸인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다”와 “복음 선포자” 라는 말의 정의는 무엇인가”

로마 가톨릭신자이며 재속프란치스칸인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다’와 ‘복음 선포자’라는 말은, 복음과 프란치스칸 전통에 깊이 뿌리를 둔 풍부한 영적 의미와 실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기쁜 소식을 나눈다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이 담긴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속프란치스칸에게 이것은 설교나 공식적인 가르침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양식**이다. 여러번 말했다시피, 프란치스칸인 우리에게 그것은 우리가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다.

- **복음을 사는 것 -- 복음 선포**는 개인적인 증거로 시작된다. 프란치스코 성인에게서 기인된 인용문 (실제로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니다)은 “복음을 항상 설교하라. 필요할 때는 말을 사용하라.”이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이 “인용문”이 그가 실제로 그 주제에 대해 무엇을 말했는가에 대한 것보다 그가 **가르치고 살았던 방식**의 관찰로부터 생겨난 것이라 것을 안다.

**개인적인 증거는 다음을 포함한다:**

+ **매일의 행동** – 친절, 겸손, 피조물 돌보기, 가난한 사람들과의 연대 - 우리는 살아있는 설교가 된다.

+ **창의적인 봉사**: 우리가 전단지를 디자인하거나, 양성 교육 자료를 준비하거나, 형제회 봉사용 선물 꾸러미를 만들 때마다 우리는 복음을 보이게 하고, 만질 수 있게 하며,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복음을 전하고 있다.

+ **기쁨에 찬 현존**: 프란치스칸으로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기쁨, 단순함, 평화를 드러내며, 우리의 현존을 통해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와 서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도록 초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 복음 선포자**– 복음의 전달자 - 복음 선포자는 다른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가톨릭 전통에서 이 복음 선포자는 사대 복음 사가 – 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 을 일컫지만,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모든 사람들도 또한 이에 해당된다.

**재속프란치스칸에게, 복음 선포자가 된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 교회와 세상, 특히 세속적인 공간들 - 일터, 이웃, 소셜 미디어와 공동체 행사같은 곳 -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것**.

+ 우리의 회칙이 요구하는 대로,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고**, 영적 가치를 실천적인 활동 속에 통합하는 것.

+ 특히 양성, 묵상, 그리고 자애로운 경청을 통해 **다른 이들의 영적 여정에 함께하는 것.**

요약하자면, 재속 프란치스칸으로서의 복음 선포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변화를 이루는 것— 아름다움, 봉사, 사랑을 통해 복음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단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안에 살아 계실 때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 **토론이나 저널에 대답쓰기**

+ 회칙 4조를 읽으시오.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는 무슨 의미입니까?

+ 일상 생활에서 당신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나요?

+ 형제회 차원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것이 때로는 왜 어려운가요?